

여성총리의 임명은 시대적 요구이다

새 국무총리로 한명숙 국회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여성 총리의 탄생을 에 타게 기다렸던 여성들에게 한명숙 국회의원이 총리로 거론된다는 사실은 오랜만의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이제 한국도 여성 총리를 탄생시킬 만한 충분한 조건이 성숙되었다. 이미 여성들은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의 충분한 역할을 통해 한국사회 발전에 충분히 기여해왔고, 새로운 시각으로 개혁과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로서 인정받기 시작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여성 대통령과 총리의 탄생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여성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리더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먼저, 여성총리의 임명은 부패한 정치를 개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2001년 3월 세계은행에서 발간한 "권리, 자원, 목소리의 성평등을 통한 개발의 성인지화 (Engendering Development through Gender Equality in Rights, Resources, and Voice)" 보고서에 따르면 정치 및 공공분야에서 여성의 참여가 높은 나라일수록 부패 정도가 낮다고 밝히고 있다. 부적절한 골프 접대에서부터 기자 강제 성추행에 이르기까지 기존 정치인들이 보여준 부패하고 부도덕한 행동에 이미 국민들은 정치적 혐오를 넘어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주의에 다다르고 있다. 이제 위험수위에 도달한 정치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리더십, 여성총리의 임명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의 정치는 소모적인 정쟁이 아니라, 민생해결을 위한 실질적 논의와 행동이 필요한 시기이다. 여성 총리는 생활문제에 밀착되어 있는 특성을 살려 양극화 해소 등 산적인 민생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

또한 여성 총리의 임명은 현재 매우 낙후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가부장적 편견으로 인해 여성 리더의 양성이 오랜 시간 걸리는 상황을 고려할 때, 여성 총리의 임명은 사회적으로 여성 리더십을 인정하는 계기를 만들어 여성들의 보다 높은 사회 진출을 허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여성 총리를 통해 성평등 문제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관심이 더욱 고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총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한명숙 국회의원은 여성 리더십이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이미 여성부장관과 환경부장관으로, 당 내의 지도적 역할을 통해 국정운영 및 행정적 리더십을 인정받았으며, 조화와

